

월요광장

메르스, 삼성, 그리고 지방의 의료



김 하 림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이제는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메르스가 한국사회를 강타하여 의료계는 물론 경제를 위시한 우리 사회의 모든 면이 흔들리고 있다. 작년의 세월호, 올해의 메르스로 한국 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다.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우려를 넘어 한국을 후진국으로까지 생각하는 듯하다.

‘갈광질광, 허둥지둥, 뒷북행성’ 등과 같은 단어가 신문 지면을 장식한 데에서도 병원과 정부의 대응 양태가 드러난다. 작년 세월호 때도 여전히 같은 단어가 난무했고, 그런 연유로 ‘국민안전처’라는 새로운 정부 조직도 만들었으나 메르스 사태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말았다.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병원이 메르스 전파의 핵심지라는 사실도 충격적이다.

‘삼성이 흔들리면, 한국이 흔들린다’는 시총의 속설을 입증한 점이 소극이라면 소득일 것이다. 평택의 환자는 한국 최고의 의술과 시설을 자랑하는 삼성병원이려면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서울로 올라갔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 엄밀히 말한다면 삼성병원은 전염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곳이 아니다. 높은 치료비를 통해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민간기업이 설립한 병원이기 때문에 개별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치중하지 전염병 환자를 격리해서 치료할 시설이나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최초로 메르스 질병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스를 전국으로 전파한 전원이자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삼성병원은 억울한 측면도 있다.

전염병과 같은 공중보건에 관한 것은 사실 정부가 맡아야 할 책임이다. 특히 대다수의 인구가 도시에 밀집해 있고, 거대 병원에 수많은 환자가 입원해 있는 오늘날의 시대엔 오히려 전염병이 급속히 확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인류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병균 바이러스도 진보해 가는 상황이고,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이즈나 에볼라, 동남아에서 발생한 사스나 조류독감 같은, 예전에는 알

수도 없었던 전염병이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하루면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국민 전체의 보건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전염병에 대한 통제와 공공적 성격의 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집단은 정부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자를 보전할 수 없어서 ‘공공의료원’의 문을 강제로 닫아 버리는 광역단체장까지 나타날 지경으로 우리 사회의 ‘국립의료원’은 민간병원보다 시설이나 의료 수준이 낮다. 마찬가지로 낮은 보급 수준으로 인해 아무리 높은 사망률을 지닌 의사라 할지라도 공공병원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격리시설이 대부분 축여 오축하면 ‘자가 격리’를 명하는 지경이고, 이로 인해 가족 간에도 메르스가 전염될 사례가 발생했다. 한 일리라고 환자 위문뿐이었는데 전염병에 걸리고, 결국 가족까지 병이 전파되는 이런 형편없는 일이 21세기 한국에서 발생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다. 그것은 지방과 서울 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 그것은 삼성병원이 전원이자 된 것도 지방의 의료 수준을 불신한 환자들이 서울의 병원으로 진료를 갔기 때문이다. 만약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도립이나 시립의료원’이 서울 못지않은 의료 수준과 시

설을 갖추고 있다면, 환자들이 굳이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면서까지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치료받으려 가지 않을 것이고, 지역 단위에서 환자가 통제되고 치료받았다면 메르스가 각 지역으로 전파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 굴지의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서울에 위치한 병원이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그러나 전염병도 평택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다시 전국의 각 지역으로 전파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여러 방면에 걸친 격차에 대해서는 세삼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역으로 어떤 면에서 삶의 질은 지방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따라 불편한 것이 오히려 의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것은 서울과 지방 사이에 차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와 국가의 일차적 책임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의료 분야만은 지방이나 서울이나 평등해야 한다. 그것이 전염병의 전국적 확대를 막는 길이기도 하다.

社說

광주U대회 혼풍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U대회) 개막 이후 광주 시내 곳곳엔 부쩍 늘어난 외국인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대회 참가자들과 선수들이 짬짬이 쇼핑과 관광에 나선 것이리라. 동구 충무로의 한 가게 주인은 벌써 외국인들에게 물건을 두 차례나 팔았다며 흡족해 했다. 광주U대회 혼풍이 확산되고 있음을 실감한다.

U대회는 광주에서 처음 열리는 대형 국제스포츠 행사다. 한국은행과 광주발전연구원은 U대회 직접 경제효과가 1000억 원, 부가가치 효과는 3500억 원~1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 만큼 메르스 사태 등으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임은 두말 할 나위 없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숙박업소가 몰려 있는 상무지구의 공식 지정 호텔들은 대회가 열리는 12일 동안 객실 예약이 모두 끝났다고 한다. 최근 개통된 KTX를 이용하는 관광객도 크게 늘어

광주권 중소형 숙박업소도 덩달아 활기를 띠고 있다. 선수촌 인근 화정동과 영주동 상가와 먹자골목 상인들은 벌써부터 즐거움 비명이다.

광주시도 대회 기간 동안 참가 선수와 임원단이 관광·쇼핑은 물론 문화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백화점 등 지역 유통업체는 쇼핑객들의 방문에 고무돼 외국인 특화상품을 비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띤다. 대회 기간 뺨뺨어 야간코스에도 포함된 광주 대인예술시장과 양동시장 등도 전통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불거리와 먹거리로 U대회 특수를 쟁기고 있다.

오랜만에 거리는 활기를 띠고 있으며 상인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다. U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민간 외교관’이 돼 ‘진절’과 ‘미소’라는 광주의 이미지를 팔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변죽만 울리고 끝난 성완중 리스트 수사

시작은 용의 머리였으나 끝은 뱀의 꼬리에 불과했다는 ‘용두사미(龍頭蛇尾)’, 태산(泰山)이 떠나갈 듯 유동치더니 튀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었다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성완중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올렸을 법한 사자성어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 수사가 정권 실세들에게 대거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고 성완중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제외한 여권 핵심 인사 6명은 성 회장이 대선 자금을 제공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모두 불기소 처리했다.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 지명상을 입힐 ‘대선자금’에 관련된 인물에게는 모두 ‘혐의 없음’이라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대신 고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에 대해서는 성완중 특사 대가

로 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쟁긴 정황을 포착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누구는 소환조사하고 누구는 서면조사로 끝낸 것도 뻔히 속내가 보이는 처사다. 더군다나 검찰은 김한길 의원 등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막판에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켜 ‘물타기 수사’라는 비난까지 받아야 했다.

검찰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살아 있는 권력’에 약한 모습을 보였다. 수십 명의 인력을 동원해 특별수사팀을 꾸렸으나 결국 사능에 불과한 셈이 되고 말았다. ‘친박 무죄, 비박 유죄, 폭로엔 과죄’라 했던 어느 일간지의 기사 제목이 모든 사실을 말해 주는 것 같다.

검찰은 이번에 중간수사 결과를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현 수사팀에 더 거대한 것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아직은 한 차례도 실시된 바 없지만 지난해 제정된 상설특별법에 따라 하루 빨리 특검 수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걸리면 같이 죽자?



박 승 일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최근 ‘집 근처에 성폭행범 2명이 이상 왔다’는 여성가족부의 알람 통지가 배달되자 마을 엄마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사진을 딱 봐도 성폭행범처럼 생겼으니, 사는 곳이 초등학교와 학원에 가까워 걱정이라니 말들이 많다. 신상이 공개되면 불쌍하지만 재범은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지난해 세월호에 이어 올해는 메르스가 우리의 일상과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국가의 책무를 묻는 부차위 위원 확인을 구하는 소송마저 제기되었다. 소송의 승패를 떠나 개인의 위생 문제만이

아닌 국가적 건강의 중요함을 일깨우는 사건이다. 전염병이란 익숙했던 단어가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바뀐 지 5년째, 이 제야 현실로 다가왔다.

그런데, 한 국회의원은 메르스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감염병 환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 보니 문제되는 부분은 이렇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무단으로 격리 장소에 이탈하거나 이동하는 등 감염 전파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감염병 관리 시설 또는 적당할 시설에 즉시 격리하거나, 격리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범안 자체에 이런 조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도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환자 등에 대하여 즉시 시설에 격리시키거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시키는 내용에 대

해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같은 조치는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국회의원하면서 가장 많이 욕을 먹었다는 발의자의 말처럼 인권침해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오히려 건강한 사회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단으로 보건당국의 통제를 벗어나는 환자가 많다는 현실이 문제의 발단이다. TV 예능처럼 “나만 안 걸리면 돼”는 우스개에서 출발해 “걸리면 같이 죽자”라는 마음이 통용되면 질병의 감염유무를 떠나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제안된 법률안을 보니 여러 곳에서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다. ‘감염병 환자가 사망하거나 사망 후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시신의 장사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고 그동안 이런 범안조차 없었다면 반성할 부분이다.

불의에 감염된 환자나 병원에 필요시 손실보상을 하되 보건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이들에게는 손실보상을 하지 말자는 제안이나,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사용내역, 블랙박스 정보 등을 확보하는 제안은 사생활 침해에도 불구하고 현실성이 있다.

반면에, 이번 메르스의 국내 유입·확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전문 인력·시설의 부족, 격리조치 위반시 제재수단 부재 등 현행 감염병 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을 핑계로 보건 조직과 예산을 늘리거나 필요시 경찰 소방 조직까지 통제하자는 제안은 보건 관료들의 입김이 반영된 느낌이다.

사실 U대회라는 축제를 진행하는 광주의 경우, 하루 2시간이상 읍읍시설에서 근무하기 힘든 악조건 속에서도 24시간 방역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진두지휘하는 미출관으로 거듭났겠습니까.

기 고

시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미술관의 꿈



조 진 호
광주시립미술관장

광주시립미술관이 지라한 중외공원은 이제 녹색의 바다입니다. 봄에는 매화향이 우리 마음을 들뜨게 하고, 이어지는 아름다운 자태의 목련과 철쭉은 우리 모두를 시인의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미술관 측면 주차나무 숲길에 들어서면 누군가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고 싶어지며, 가을 단풍 또한 일품입니다. 낙력장승에 흰 눈이 소복이 쌓이는 겨울이 되면 시아의 모든 풍경이 사진작품이 되는 중외공원입니다. 어느덧 광주시립미술이 이처럼 아름다운 공원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지 8년이 되었고 전시와 문화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관람객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시민들이 편하게 방문하고, 부담 없이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층 로비에는 지역 청년작가들이 스스로 기획한 아트라운지가 조성되었고, 그 공간은 시민들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총 6실의 전시공간에서는 매년 10차례 이상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를 효율적으로 관람하기 위해 전시장 안내요원 및 도슨트, 문화해설사님들이 작품실명을 합니다. 또한 어린이 갤러리는 년 4회의 기획 전시를 추진하여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문화적 경험을 선물합니다.

1층 로비공간에 미술전문도서를 갖춘 약 9000여점의 자료를 구비하였고, 이는 시민들의 미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관, 세미나실, 소회의실, 아카이브자료실, 미술실기실, 어린이문화센터 그리고 옥상의 정미정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로 시민들에게 고품격 미술문화 서비스를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보다 나은 시민편

의를 위해 북카페, 어린이친환경놀이터, 주말예술장터, 소외받는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미술관, 교육청과 협업하는 어린이미술교육, 작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남도스케치 그리고 사립미술관과의 상생프로그램 추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은 시민여러분의 고견을 청취하고, 지역의 미술인들과 힘을 모아 실현 하였습니다.

공원 내에 팔각정은 한동안 폐쇄되었으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휴식공간으로 돌려드릴 계획입니다. 지역작가를 위한 레지던스사업 관련으로 창작스튜디오를 신축하여 국제적인 작가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개념의 청년미술인창작센터를 마련하여 우리의 청년작가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미 북경창작스튜디오를 통하여 우리 청년작가들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미 북경창작스튜디오를 통하여 우리 청년작가들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미 북경창작스튜디오를 통하여 우리 청년작가들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미 북경창작스튜디오를 통하여 우리 청년작가들을 지원하였습니다.

풍격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가능성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일본, 대만, 중국, 동남아시아의 미술인들과의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광주시립미술관은 아시아의 중심에 자리매김하는 미술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미술관의 존재는 시민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정체성과 미래적 비전을 공유하는 문화적 교육기관입니다. 이를 위하여 방학기간에는 광주시립미술관 미술학교를 운영하여 우리지역에 건강한 미술문화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는 오는 9월 진행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간에 열리는 미술관 자체기획전인 북유럽디자인과 더불어 다양한 체험교육과 명품공예의 시민참여형 미술축제로 발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오늘날 이러한 광주시립미술관의 진정한 주체는 광주시민 여러분입니다. 우리 시립미술관 모든 직원은 미술관내 전시장과 기타 문화공간에 시민여러분의 밝은 미소가 넘쳐나는 생기 넘치는 미술관을 상상합니다. 시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미술관의 꿈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無 等 鼓

강연 행사를 주관하다 보면 강사의 유명도에 비해 실제 강의 수준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갖은 애를 써서 ‘좋다는’ 강사를 초빙해 놓았는데, 막상 강연을 듣는 청중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을 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흥미 있는 주제인 데다 강사가 그 분야의 전문가임에도, 말이 어눌해 청중에게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그래도 봐줄 만하다. 꾀 참고 귀 기울여 듣다 보면 어

였는데 웬걸, 연단에 서자마자 청중의 손을 빨아들일 기세로 열광을 펼치는 강사도 드물지만 없지는 않다. 갑탄과 환호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느덧 강의가 끝나 버리는 경우도. 또 ‘어쩐지 조금 시시한데’라는 생각이 들 때쯤 내면의 매력을 폭발시켜 강연장을 감동의 도가니로 만드는 강사도 있다.

자나고 나서 보면, 크든 작든 감동을 줬던 강사들은 인생의 혹독한 시절을 이겨 냈고 또 그 고난을 통해 자신만의 이

야기를 갖게 됐다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이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내

고서 강연을 듣는 것도 결국엔 진실하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듣고 배워 자신을 고양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강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늘 무언가를 이야기하며,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서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조금 과장하자면 거의 표절 수준이라 할 만한 이야기를 늘어놓을 땐 정말 난감하다.

물론 반대의 사례도 없지 않다. 그저 ‘조금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초빙

명강사와 명강연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면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